

메시, 발롱도르 수상 예정 ... “역사적인 8번째 될 것”

리오넬 메시(36, 인터 마이애미)가 역사적인 8번째 발롱도르를 품에 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유럽이적시장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전날 “메시가 2023년 발롱도르 수상자가 될 것이다. 모든 징후가 메시 수상이 확정이라고 가리키고, 다시 한번 메시가 발롱도르 수상을 할 거라고 알린다. 이것은 메시의 역사적인 8번째 발롱도르가 될 것(it will be Messi’s historical 8th Ballon d’Or)”이라고 확인했다.



▲ 지난 2021년 7번째 발롱도르 수상한 리오넬 메시가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는 바르셀로나 시절 유럽에서 모든 트로피를 들었지만 유독 국가대표팀과 인연이 없었다. 하지만 월드컵 직전 코파 아메리카를 품고 커리어 첫 A대표팀 우승을 하더니 월드컵 우승까지 해내며 할 수 있는 모든 퍼즐을 완성했다.

메시는 2009년 커리어 첫 번째 발롱도르를 품에 안았다. 이후 2012년까지 4년 연속 수상을 했다. 2015년, 2019년, 2021년까지 발롱도르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7번째 수상을 만끽했다. 올해까지 수상한다면 전무후무한 8번째 발롱도르 수상 기록을 남긴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상을 밟았다. 당시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주장으로 7골을 터뜨리며 팀 우승을 이끌었다. 메

발롱도르는 1956년부터 진행된 역사 깊은 상이다. 축구계 최고 권위로 불린다.

NBA 단장들 “우승 후보는 보스턴-덴버, MVP는 요키치” 예상

지난 24일 미국프로농구(NBA)가 2023-2024시즌을 개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NBA 공식 홈페이지는 NBA 단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공개했다.

단장들은 2023-2024시즌 NBA 우승팀을 예상하는 질문에 보스턴 셀틱스와 덴버 너짓츠를 지목했다. 두 팀이 나란히 33%의 표를 얻어 공동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밀워키 벅스(23%), 피닉스 선즈(7%), LA 클리퍼스(3%)가 따랐다.

MVP를 묻는 질문에는 덴버 센터 니콜라 요키치가 43%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2020-21, 2021-22시즌 MVP를 차지한 요키치는 지난 시즌 컨퍼런스 결승과 파이널 MVP에 선정됐다.



▲ 니콜라 요키치. 사진=wikwand.com

요키치 뒤를 야니스 아데토쿰보(밀워키, 20%), 제이슨 테이텀(보스턴, 13%), 루카 돈치치(달러스, 10%)가 이었다.

NBA 단장들은 이외에도 ‘5년 내 최고의 선수가 될 루키’라는 질문에 웬벤야마(90%)라고 답했다. 또 상대 감독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변화를 유도하는 선수로는 스테판 커리(골든스테이트, 40%)와 요키치(33%), 2023-24시즌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일 선수로는 앤소니 에드워즈(미네소

타, 23%), 케이드 커닝엄(디트로이트, 20%)라고 대답했다.

NBA 단장들은 NBA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는 커리(63%), 루카 돈치치(달러스, 27%)를, NBA 최고의 슈팅 가드로는 데빈 부커(피닉스, 63%), 커리(10%)를, NBA 최고의 파워 포워드로는 아데토쿰보(97%)를, NBA 최고의 센터로는 요키치(93%)를 꼽았다.

‘금녀 벽’ 넘은 소렌스탐 ... 여자 골퍼 첫 오거스타 회원



▲ 안니카 소렌스탐. 사진=뉴스1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대에서 활약한 골퍼 중 최초로 미국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회원이 됐다.

지난 2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 골프위크는 전날 “LPGA 통산 72승을 거둔 소렌스탐이 이달 초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회원이 됐다. 최근 (오거스타의 상징인) 그린 재킷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소렌스탐의 오거스타 회원 가입을 확인했지만, 골퍼장과 남편 마이크 맥기 등이 말을 아낀 사실도 덧붙였다.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회원 명단을 밝히지 않는다.

1932년 개장한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여자 프로골퍼 출신 회원을 받아들인 건 소렌스탐이 최초다. 오거스타는 1934년부터 ‘명인열전’으로 불리는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를 개최한 명문 골프장이다. 전통적으로 여성 회원을 받지 않고, 백인 남성 위주의 회원제로 운영해 골퍼계 안팎에서 ‘금녀의 공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2012년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과 여성 사업가 달라 무어를 회원으로 받아들인 뒤, 부분적으로 여성 회원이 활동해 왔다. 현재 영향력 있는 사업가 등 300명가량 회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렌스탐은 고아널드 파머, 잭 니콜라우스 이후 골퍼로는 역대 세 번째로 이 골프장의 회원이 됐다.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